

“광주FC, 포기하지 않는 끈끈한 팀 만들겠다”

이정호 감독 새해 각오

“빛의 도시에서 선수들이 빛날 수 있도록 하겠다. 포기하지 않는 끈끈한 팀을 만들겠다”며 광주 FC의 새 사령탑 이정호 감독이 각오를 밝혔다.

광주가 3일 2022시즌을 위한 스타트를 끊었다. 광주는 이날 창원축구센터로 이동해 동계훈련에 돌입했다.

새 사령탑으로 공식적인 일정을 시작한 이 감독은 “광주 구단에서 좋은 기회를 주셨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다. 수석코치를 맡았던 팀이기 때문에 선수들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잘 알고 있다. 기대, 긴장, 흥분 등 감정이 섞인 그런 마음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감독은 ‘포지션 파괴’를 통해 팀 전력을 극대화하고 ‘공격축구’를 보여겠다고 밝혔다.

이 감독은 “내 축구는 포지션 파괴다.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유기적으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려고 한다. 앞에 선수가 공격적으로 나가 있으면 뒤에 그 공간을 메워주면서 하겠다. 나도 마찬가지로 팀이 쪼다. 위에 좋은 선수가 있어서 공격적인 축구를 하려고 한다”며 “공격축구를 하려면 팀 밸런스가 가장 중요하다. 밸런스 유지를 위해 선수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팀을 중심으로

포지션 파괴로 팀 전력 극대화

공격축구로 승부하겠다

사이드 플레이로 골 결정력 높여

수비 조직력 강화 역전패 줄일것

움직일 수 있는 팀을 만들겠다는 구상. 스쿼드가 얹은 팀인 만큼 광주에 필요한 전략이기도 하다.

이 감독은 “멀티 플레이어들이 필요할 것 같다. 포지션이 바뀌게 되면 만약 센터백이 미드필더로, 또는 윙백으로도 갈 수 있는데 그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선수들에게 정확히 인식시키고 피드백을 줄 것이다”며 “내가 센터백이기 때문에 공격을 안 한다. 내가 센터 포워드인데 수비를 안 한다” 이런 개념을 완전히 바꾸고 싶다. 서 있는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지 중점적으로 이야기 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 광주의 아쉬움이자 숙제로 남은 ‘결정력’에 대한 방안도 언급했다.

“사이드 플레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양한 사이드 공격을 통해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한다”고 언급한 이 감독은 “어차피 골은 박스 안에서 나



광주FC의 새 사령탑 이정호 감독이 3일 창원 동계훈련을 떠나기 전에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오기 때문에 박스 안에서 훈련을 많이 하려고 한다. 크로스가 올라가면 박스 안에 숫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박스 안에 숫자를 얼마나 둘 것인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역전패가 많았던 만큼 수비 조직력도 중요하다.

이 감독은 “윙백과 센터백에 신경을 많이 쓰고 미드필더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광주 수비 조직력이 중요하다. 지난해 광주가 (21패로) 가장 많이 졌다. 골도 두 번째(54실점)로 많이 내줬다. 그래서 수비 조직력이 우선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도 강조할 생각이다.

이 감독은 “상대팀으로 봤을 때 광주는 정말 열심히 한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르다. 결정적인 때 구심점이 없었다. 중심을 잡아줄 선수도 만들고, 팀도 만들어야 한다. 힘들 때 팀이 끈끈하게 하나로 가는 모습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남기일 사단의 수석코치로 성남과 제주에서 승격의 순간을 경험했던 만큼 플레이오프를 우선 목표로 승격을 향해 전진할 각오다.

이 감독은 “목표는 플레이오프다. 그다음 목표가 승격이다. 의욕만 가지고 하다 보면 실망도 크고, 실망이 크면 포기도 빠르기 때문에 매경기 최선을 다하면서 가겠다. 그렇게 하면 승격이라는 큰 목표가 눈앞에 보일 것이다”며 “지고 있다가도 뒤집을 수 있는 자력이 있다. 팬들이 경기장 찾아오셔서 응원해주신다면 힘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경기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좋은 기회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다. 수석코치로서 많이 보면서 준비가 됐다. 광주에서 좋은 기회를 줬다”며 “광주는 ‘빛고을’ 빛의 도시다. 선수들이 빛이 날 수 있게 만들고 싶다. 단 팀이 먼저 빛나야 한다. 팀이 먼저 빛나고 개인이 빛 날 수 있는 팀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했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코칭스태프 개편 ... 2022시즌 승격 위한 도전 시작

새로 코칭스태프를 구성한 광주FC가 2022시즌 승격을 위한 도전을 시작했다.

광주는 3일 새 사령탑 이정호 감독과 2022시즌을 이끌어 갈 코칭스태프 구성을 완료했다.

이정규 수석코치, 조용태 필드코치, 신정환 골키퍼 코치, 김경도 피지컬 코치가 ‘이정호 사단’을 구성했다.

이정규 수석코치는 2005년 성남 일화(현 성남 FC)에서 데뷔해 고양 국민은행 축구단을 거쳐 2011년 고양고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우석대, 동의대, 중국 리장FC, 부경고에서 코치직을 수행했고 2019년 아산 무궁화(현 충남아산) 코치로 부임해 3년간 박동혁 감독을 보좌했다. 조용태 필드코치는 광주팬들에게는 친숙한 얼굴이다.

수원과 경남을 거쳐 2014년 광주 유니폼을 입었고, 3년간 51경기에 나와 5골 3도움을 기록했다. 2014년 경남과의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는 환상적인 중거리 슛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정호 감독이 수석코치로 있던 2016시즌 선수로 함께 했으며, 은퇴 후 광주 U-18 금호고 코치로 부임해 2019 K리그 유스 챔피언십, 2019 전국 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 우승 등에 기여했다.

신정환 골키퍼 코치는 제주와 전남을 거친 뒤 울산 현대미포조선, 용인시청 등에서 활약하다 2014년부터 모교인 고려대에서 4년간 코치직을 맡았다. 이후 청주대로 자리를 옮겨 제54회 춘계 대학축구연맹전 우승, 2년 연속 U리그 권역리그(2018·2019) 우승 등에 역할을 했고 2019년 덴소



광주FC의 새로운 코치진. 왼쪽부터 김경도 피지컬코치, 조용태 필드코치, 이정규 수석코치, 신정환 GK코치. (광주FC 제공)

컵 한일대학축구정기전 코치도 역임했다.

김경도 피지컬코치는 아우테이아 피트니스, 나시오날 아틀레티코 등 브라질 무대에서 경력을 쌓았고, 2021년 국내에 복귀해 제주에서 피지컬 및 재활을 담당했다.

이정호 감독은 “K리그2를 잘 아는 분들을 추천 받았고,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코칭스태프를 구성했다”며 “팀이 혼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감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모셨다. 실력뿐 아니라 선수단과 소통을 이어가는데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로 코칭스태프를 구성한 광주는 1차 동계 훈련을 위해 3일 창원으로 떠났다.

광주는 창원 축구센터에서 오는 15일까지 강도 높은 체력훈련을 전개할 예정이다. 개개인의 역량 평가를 통해 장단점을 파악하고 주축선수들과 시너지를 발휘할 선수 보강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어 17일부터 29일까지 별교에서 2차 훈련을 하며 선수들의 호흡 및 조직력 향상에 주력하고, 전술 훈련 및 연습경기 등을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드래곤즈, 코칭스태프 구성 마무리 ... 1차 동계훈련 돌입

‘2021 FA컵 챔피언’ 전남드래곤즈가 2022시즌 코칭스태프 구성을 마무리했다.

전경준 감독 체제 3년 차를 맞은 전남이 K리그 1 승격을 위한 코칭스태프 재편에 나섰다.

김영진 수석코치가 전경준 감독을 보좌한다.

김영진 수석코치는 2003년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동중(2012·2015)과 FC서울 U15 (오산중, 2016·2021) 감독을 역임했다.

2020년부터 호흡을 맞추고 있는 한동진 골키퍼 코치와 강진규 코치는 3년째 ‘전경준호’에 함께 한다.

지난 시즌 플레이코치로 그라운드와 벤치를 오갔던 최효진이 현역 은퇴 후 정식 코치로 임명됐다.

또 피지컬 코치로 최희영 코치가 합류했다. 코칭스태프 구성을 완료한 전남은 자유선발로 선문대 홍석현과 한국열린사이버대 이성빈 등 신인 선수 2명도 영입했다.

선문대 2학년인 마진 홍석현(184cm·76kg)은 높은 점프력을 활용한 제공권과 빠른 발이 장점인 중앙수비수다

2021년 선문대의 춘계와 추계 대학축구연맹전 우승에 기여했다. 특히 춘계 결승에서 기선을 제압하는 선제골을 넣었고, 추계 대회에서는 수비상을 수상했다.

이성빈(185cm·83kg)은 한국열린사이버대 4



2022시즌 전경준 감독(오른쪽에서 세 번째)을 보좌할 전남의 코치진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전남드래곤즈 제공)

학년 졸업 후 전남 유니폼을 입는다.

이성빈은 대학교 4년간 대부분 경기를 풀타임 소화할 만큼 체력이 뛰어나며, 기본기와 패스를 바탕으로 한 빌드업이 장점이 중앙수비수이다. 공격 상황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전진 배치되는 등 전술 이해도가 높아 다양한 전술 옵션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홍석현은 “U22 자원이 될 수도 있지만, 나이 신

경 쓰지 않고 주전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고, 이성빈은 “많이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한다. 정말 최선을 다할 생각으로 들어왔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헌신적으로 수비하겠다”고 입단 소감을 남겼다.

한편 전남은 3일 광양에서 1차 동계훈련에 돌입해 승격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메시, 코로나19 확진 ... FA컵 출전 무산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코로나19에 걸렸다고 AFP,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은 2일(현지시간) 메시 등 소속 선수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메시는 연말을 맞아 고향인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PSG 감독은 메시와 PSG 의료팀이 계속 연락하고 있다며 그가 음성 판정을 받으면 프랑스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메시는 이달 3일로 예정된 프랑스축구협회(FA)컵인 쿠프 드 프랑스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다.

포체티노 감독은 메시가 이달 9일 리옹에서 열리는 리그1 경기에도 빠질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메시는 개인 통상 7번째 발롱도르를 수상한 역대 최다 수상자다.

1956년 제정된 발롱도르는 프랑스 축구잡지 프랑스풋볼이 한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축구선수에 주는 권위 있는 상이다.

메시와 함께 후안 베르나트, 세르히오 리코, 나탕 비투말잘라 등 다른 PSG 선수 3명도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연합뉴스

권순우, 새해 첫 경기 한·일전 2-0 완승

애들레이드 인터내셔널 16강

한국 테니스의 간판 권순우(53위·당진시청)가 2022년 새해 첫 경기를 완승으로 장식했다.

권순우는 3일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애들레이드 인터내셔널 1차 대회(총상금 50만 달러) 첫날 단식 본선 1회전에서 니시오카 요시히토(81위·일본)를 2-0(6-1 6-2)으로 완파했다.

이 대회 8번 시드를 받은 권순우는 16강에서 뱅자맹 봉지(64위·프랑스)-미카엘 이메르(94위·스웨덴) 경기 승자와 만난다.

권순우는 이날 승리로 17일 호주 멜버른에서 개막하는 시즌 첫 메이저 대회 호주오픈 전망을 밝혔다.

호주오픈은 4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권순우가 아직 본선에서 승리한 적이 없는 유일한 대회다. 권순우는 또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단식 우승자 니시오카를 꺾으며 올해 열리는 황제우 아시안 게임 금메달에 대한 자신감도 키웠다.

니시오카는 키 170cm로 투어 최단신 선수지만

원순잡이에 탄탄한 수비와 영리한 경기 운영 능력을 겸비한 까다로운 상대였다.

개인 최고 랭킹이 니시오카가 2020년 48위, 권순우는 지난해 52위고 이날 경기 전까지 상대 전적도 니시오카가 2전 전승으로 우위를 보였다.

그러나 권순우는 이날 상대 첫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하며 3-0까지 앞섰고, 4-1이던 상대 서브 게임에서는 30-30에서 챌린지를 통해 판정을 뒤집고 30-40으로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아 5-1을 만들었다.

볼과 23분 만에 첫 세트를 따낸 권순우는 2세트 첫 상대 서브 게임마저 브레이크하며 니시오카에게 흐름을 내주지 않았고, 니시오카는 애꿎은 라켓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며 분풀이했다.

2세트 게임 스코어 4-1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서브 게임을 내줬지만, 곧바로 이어진 상대 서브 게임을 빼앗아 결국 1시간 8분 만에 승리를 확정했다.

이날 권순우는 최고 시속 208km의 서브로 서브 에이스 10개를 작렬했고, 1세트에는 실책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경기를 펼쳤다. /연합뉴스